

특별기획

“국가암검진 반드시 받으세요”

군산시 보건소는 국민 사망률 1위인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국가암검진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무료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65세 이상 출생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중 ▲위암과 간암,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이 해당 된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경우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는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권자는 최대 220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군산지역은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한국병원, 차병원, 누가병원, 미듬내과, 숙편내과, 동서의원 등 29개소가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60-3288)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시

최근 학교 내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관내 집단급식소 325개소에 대해 오는 9월 2일 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집단급식소 내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것으로 식기세척제 및 행균 보조제의 용도에 따른 사용기준 준수 여부, 용도 및 규격량 사용 여부, 규격 및 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한 관내 초·중·고교 집단급식소 71개소에 대해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사용 여부를 지도할 예정이다.

오숙자 식품위생과장은 “다수에게 공급되는 집단급식소인 만큼 점검 결과 유해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불확실한 제품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행균 작업 등을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김천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김천시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가 지난 22일 군산시 청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군산시와 김천시는 자매결연 도시로서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 매년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신선한 양질의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양 자매도시간 활발한 우호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교류판매 행사에서는 김천 농특산물인 김천포도와 자두 등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4,800여만원에 이르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직거래행사는 김천시장을 비롯한 김천시의회 의원, 농협 관계자들이 군산을 방문해 앞으로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자매도시간 우호를 다지기로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청원, 저소득가정착한기부

군산시 청원들이 관내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착한 기부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청에서는 김상운 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청원을 대신해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지원 기부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은 여성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루어졌다. 군산시 청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청원 한사랑 나눔 모금액’으로 사용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김상운 노조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생용품을 구입하기 힘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공직자가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방치된 공·폐가 대책 절실

군산시내에 568여채 우범지대로 전락... 시, “사유재산이라서 소유자 동의 필요”

도시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공·폐가 등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는 물론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에 노출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군산시에 따르면 관내 공·폐가는 7월 현재 568여 채로, 이처럼 방치된 폐가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 폐가의 경우 각종 쓰레기가 쌓여 화재 위험이 있으며 붕괴위험까지 높아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방 2지구의 경우 전체 40세대 중 13세대가 공·폐가로 방치되고 있어, 이곳을 청소년들이 야지로 삼아 탈선 장소로 둔갑하면서 각종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밤 11시경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곳 폐가에서 담배를 피

우고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일으켜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올 초 사정동 한 폐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인근 사무실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강도 상해 혐의로 수배 중이던 60대가 군산의 한 공가에 숨어 있다가 달미를 잡혔다.

또한 과거 옥서면 한 마을 폐가 창고에서 불이나 남자 초등학교생이 숨지다가 발견된 수 억원의 도박판을 벌인 전문도박단 등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폐가를 범행 후 도피처로 사용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벌어지면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는 예산부족 등을 이

유로 수개월에서 수년째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해방 2지구 주민 이모(60·여)씨는 “이 지역은 병·의원도 없는 낙후지역으로 청소년들이 폐가나 빈 건물 등을 드나드는 것이 종종 목격되고 있고, 화재위험은 물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공·폐가 등에 대해 정비 사업을 벌이며 개선시켜 나가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폐가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 없이 조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 중앙지구대 범죄 취약지 공·폐가 일제수색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최근 범죄 취약지 공·폐가 등에 대한 방법 진단 및 일제수색을 통하여 성범죄 등 척결에 앞장서고 주민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일제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청소년 상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개소 출입문 미시정 등으로 범죄사용에 가능한 취약개소, 사채우

기 등이 용이한 물탱크, 사각지대 등 범죄 취약 개소를 집중 수색하여 취약점 개선·보안을 위한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했다.

현재 중앙지구대 관내에는 공가20개소, 폐가 25개소, 총25개소로 노숙자나 가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뿐 아니라 범행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

이 높아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점검과 수색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중앙지구대장(경감 김용대)은 “범죄의 취약지인 공·폐가의 일제수색으로 주변 주민들의 치안체감 안전도가 향상되고 지속적 공·폐가 관리로 범죄예방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농축산검역 호남지역본부 특별검역 실시

휴가철 해외여행객 통한 식물류 반입 증가 따라 내달 7일까지 검색활동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도순)는 휴가철 해외여행객을 통한 휴대 식물류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이번 검역기간 동안 입항하는 여객선 내에서 식물검역 안내 방송을 강화하고 공·항만 입국장에서는 여행객이 휴대한 물품에 대해 개장검사를 확대

하는 한편,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계곡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적으로 안전한 건조 농산물은 서류 및 현물검사 등으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 정부 3.0의 수요자 맞춤형 검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한·중 인문 문화교류 ‘새만금문화학당’ 수강생 군산 방문

군산에서 운영 중인 한·중 인문 문화교류 프로그램 ‘새만금문화학당’ 수강생 20여명이 지난 21일, 24일 일정으로 군산을 방문했다.

중국인들의 한국 및 군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중 교류협력사업의 기반 형성을 위해 군산시에서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새만금 문화학당사업은 중국 현지인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해마다 개소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양저우에 이어 웨이

하이에 문화학당을 새로 개설하여, 중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총 30회에 걸쳐 한글교육 및 한국과 군산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 문화학당 프로그램은 엔타이(烟台), 칭다오(靑島), 양저우, 웨이하이(威海) 등 중국 내 4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수강생 270명이 넘는 등 중국 내 대표 교류 브랜드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학당에 참가한 수강생들은 이번 군산방방 기간 동안 한국의 고유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새만금현장 및 근대역사 문화지구, 유구항교 등 군산을 대표하는 지역을 돌아보며 군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됐다”며 “한·중 양국은 오랜 역사를 함께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시아 미래역사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국악인 임승용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 나눔교육부분 대상 수상

임승용 국악인은 “최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내빈, 수상자, 축하객 등 200여명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제2회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 나눔교육부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2016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은 2016 제 2회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교육신문연합회가 주최하고 뉴스에듀신문사와 교육그림 더필드가 주관, 사단법인 한국인문사협회와 신원리조트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해 7월 21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접점 사자져 가는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과 사단됨됨이의 핵심적인 가치와 덕목을 전파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선정하여 수상했다.

또한 이날 주최측 관계자는 “임승용 국악인이 ‘희망찬 미래와

행복을 위한 전국민 백년대계 인성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공적으로 국악발전 및 교육발전 등에 기여했다”고 수상이유를 덧붙여 발표했다.

국악인 임승용 이사장이 맡고 있는 사단법인 금강성포도노동악보존회는 2015 익산시동천만송이 국화축제 공연, 한일 인텔 재할요양병원 찾아가는 위문공연, 응포곰개나무 해남이축제 공연, 정월법인 한국인문사협회와 신원리조트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해 7월 21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접점 사자져 가는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과 사단됨됨이의 핵심적인 가치와 덕목을 전파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선정하여 수상했다.

/익산=정양원기자



도농협동연수원삼기농협·여산농협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교육 실시

농협중앙회 도농협동연수원, 농협익산시지부 관내 삼기농협 및 여산농협은 다문화가족 3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한국 문화체험 및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제5기 교육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했다.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은 2009년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수생을 선정하여 다문화가족 간 소통을 위한 교류와 한국 문화체험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7,997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는 총 14기(교육생 980명)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농촌 활력을 위한 후계세대로서의 미래비전 만들기를 위해 농업·농촌 가치 이해, 다문화생활기록북강과 함께 비담

직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부부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고취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서울역사박물관, 농업박물관, 이쿠아플라네타리움, 안성판랜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간 농업·농촌에 대한 대화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농촌의 현실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도농상생의 동기가 부여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다문화 엄마들이 결성한 ‘다모’글로벌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선배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 사회활동 참여,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이야기와 국가별 전통춤으로 이루어진 공연을 통해 가족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문화적 소통의장을 마련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익산시는 8월 31일까지를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여름철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고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묘지조성, 전원주택 등의 택지조성, 농지개간 등 허가 없이 산지 전용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 산림벌채, 굴취,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이 지속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훼손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산지전용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무허가벌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산주나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도 산림 절도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범법자 양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고, 전광판 게시판 등을 이용해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익산=정양원기자